

#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구제정책에 관한 인지도, 기대도, 활용도

## The Level of Recognition, Expectation and Utilization on Policies of Social Remedies for Credit Defaulters

건국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이 영 희  
한국소비자보호원  
원 장 이 승 신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Doctor course* : Lee, Young-hee

Consumer Protection Board

*President* : Lee, Seung-sin

###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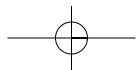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Although the personal credit rating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in our era, a significant number of social problems have occurred due to the rising number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with low credit rating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determine effective policies of social remedies through an investigation of recognition, expectation, and utilization levels of relevant public policies available to assist individuals with low credit ratings. The sample population was taken from the credit defaulters who had visited the Credit Recovery Commission. The research was undertaken from April 28 to May 4, 2004.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ed variables concerning the degree of utilization of remedial public policies.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s, less educated individuals, and those with higher levels of expectation and recognition were more likely to utilize remedial policies. Based on the research, conclusions regarding the usage of public remedial policies for credit defaulters are as stated below. Education for households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increase the expectation and recognition levels of relevant policies.

**주제어(Key Words):** 신용불량자(Credit Defaulters), 인지도(Recognition), 기대도(Expectation), 활용도(Utilization)



## 1. 서론

21세기는 신용사회라고 불리울 만큼 신용이 중요시되는 사회이다. 1997년 IMF사태로 경제불황이 급속하게 찾아와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 후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무제한적인 신용카드 발급과 잘못된 소비자들의 소비풍조 등의 이유로, 2004년 1월 우리나라의 가구 당 부채는 2,921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매일경제, 2004.1.16). 그리고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의 증가로 세금 체납자 및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포함한 개인 신용불량자수가 4월말 현재 397만명을 기록, 400만명에 육박했다(머니투데이, 2004.5.27). 이와 같은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야기되는 문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금융거래상·재산상·생활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는 가운데 여러 형태의 채권 추심 압박에 시달리게 되므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박수진, 2003). 또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면 사회불안 및 소비생활의 부진 및 내수 판매량의 급감, 국내경제성장률의 둔화 등으로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와 그들의 가족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사회전반에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것은 곧 신용사회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과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신용불량구제가 시급하다.

여기서 소비자신용이란 개인이 미래의 시기에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 상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 혹은 화폐를 이행 받는 지급수단으로 개인이 각종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또는 가계용도를 위한 자금을 융통하는 소비자 금융과 신용카드 이용, 할부로 책이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할부판매 또는 할부금융을 총칭한다(홍승제, 1997). 우리나라 소비자신용의 역사는 그 동안 은행에서 복수업무로 취급하여온 신용카드, 개인대출, 계 등이 주종을 이루다가, 1987년 신용카드업법의 제정과 함께 소비자신용을 주업으로 하는 신용카드 전문회사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신용카드 전업회사는 막혔던 소비자신용의 욕구를 일시에 분출시켜 신용카드사용의 대중화를 앞당기었다.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가계부실이 심화될 경우 단순히 소비자 개인의 재무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계전체의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소비사회와 국가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성이 가중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의 원인과 현황을 알아보고, 신용불량구제정책에 대한 신용불량자들의 인식과 기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신용회복과 가계재무관리가 이뤄져 가계경제의 기반을 다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불안요인들이 줄어들어 결국 국가 경제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신용불량자의 개념 및 등록기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법률 및 규약에서 신용불량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의 법률적 근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002.6.29 대통령령 제17645호 재정경제부] 제5조 (신용불량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기관인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그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개정 1999.4.24).

2004년 6월 신용불량자의 등록기준은 연체이외에 대위변제/대지급, 특수채권, 부도, 가계당좌불량, 공공기록정보(세금체납 등), 금융질서 문란자, 관련인 등에 관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연체의 등록 기준은 금융권에서 30만원을 초과하여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0만원의 초과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30만원을 초과한 할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경우,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났거나 금융사기 혹은 부정대출, 허위서류대출 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 2. 신용불량자의 현황과 증가원인

2004년 4월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하는 신용불량자는 397만명으로 2003년 말에 비해 25만명이 증가하였다.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수가 전체 신용불량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말 에는 약 38%를 차지하였으나, 2001년에는 43%로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57%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약 64%까지 증가하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현실은 신용카드가 신용불량자 양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개인파산도 급증했다고 볼 수 있다. 신용불량현황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2000만

원 이상이 132만명(35.4%), 500만원 미만 119만명(32.1%)으로 나타났으며, 등록기관수별로 살펴보면 단일금융회사 연체자 137만명(37%), 다중채무자(2개이상 금융회사 연체자)가 235만명(63%)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185만명(49.8%), 30대 113만명(30.4%), 20대 73만명(19.7%)를 차지하였다(재정경제부, 2004).

또한 청년 신용불량자의 급증도 문제이다. 10대 신용불량자는 2000년 말 3,000명에서 2001년 말 1만2,000명으로 늘어나고 20대는 26만7,000명에서 40만8,000명으로 52.8%나 늘어나는 등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신용불량화가 두드러졌다(한국일보, 2002.1.31). 또한 2003년 5월말 개인워크아웃 신청자(8,941명) 가운데 연령별로는 30대가 39.5%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33.8%로 20-30대가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여 청년 신용불량자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줬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및 금융기관 민간이 신용불량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05년 4월 은행연합회의 집계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수는 360만 명이다(서울신문, 2005.4.14.).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개인 신용이 빠르게 증가하는데 있으며 개인 신용의 증가는 개인의 소비지출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IMF 체제 이후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자영업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실직 및 감봉,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른 대규모의 손해,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높은 물가 수준 등으로 인해 지급 불능의 상태에 처한 개인의 증가에 있다. 이들은 소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소득이 끊어지거나 감소하여 기존의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대출에 의존했다가 신용불량에 처하게 된 사람들이 다(전효찬, 2000).

또한 신용불량자가 늘어난 데는 신용카드 및 휴대폰 사용 인구의 급증에 따라 카드 연체자와 통신요금 연체자가 늘어난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금융감독원(2003)에 따르면 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사들이 만 18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연령제한은 비교적 잘 지켰으나 소득의 유무는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카드가 발급되는 순간부터 능력에 관계없이 수백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어 신용능력이 취약한 10대와 20대의 신용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3. 신용불량구제정책

신용불량의 급증은 내수경기 침체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신용카드 빚에 몰려 자살,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불량자수를 줄이기 위하여 신용불량구제에 적합한 여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5년 3월부터 생

계형신용불량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두고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정책과 제도를 활용하여 신용구제를 받는 것과 본인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도덕적 해이와 근본적인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불량구제정책으로 개인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제도, 각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신용불량구제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소비가 과다한 신용카드사용이나 신용대출, 지나친 빚보증 등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당사자를 불러 부채 부담경위 등을 심문하는 절차를 밟은 후, 파산선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파산신청의 궁극적 목적인 채무에서의 해방되려면 면책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아야만 한다.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되지 못하면 계속 빚을 갚아야 하고 법률상 여러 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인파산제도가 있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는 등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법원이 파산법상의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여 면책율을 높이는 추세이나 회생보다는 파산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도로는 급증하는 신용불량자의 회생과 재건을 도모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박원일, 2003).

#### (2)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객관적인 제3자(법원)가 채무상황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상환연장이나 분할상환, 이자율조정이나 감면, 채무감면 등의 조정을 해줌으로써 개인채무자 자신의 장래 수입 등으로 계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도모하는 동시에 가계부실대출의 축소 등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송태경, 2003).

개인회생제의 대상은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는 신청자격이 없으며, 또한 법원이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로 판단하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 (3) 개인워크아웃제도

2002년 10월 신용불량자들의 직업 소개 및 부업 알선, 신용회복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들을 최대한 구제하기 위한

## 4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3호, 2006

방안들을 적극 강구하며, 신용관리교육체제를 통하여 신용불량자의 사전예방과 채무조정 확정자에 대한 재교육으로 신용불량자의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리하여 2002년 11월부터 채권기관과 과중채무자간에 채무를 재조정하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workout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업무를 말한다(신용회복위원회, 2004). 그러나 채권기관의 협의체인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채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채무조정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최현자, 2002).

## (4) 배드뱅크제도

2004년 5월부터 시행될 배드뱅크 제도는 신용회복의 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에게 최장 8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기관 공동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다. 대상자는 2004년 3월 10일 현재 1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있으며 그 중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가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총 채무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은 2004년 4월 22일 현재로 총 642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한마음금융, 2004). 배드뱅크(개인 자산관리회사)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신용불량자들도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도권 금융회사의 빚은 5천만원 미만이지만 그 외 빚이 많은 신용불량자들은 우선 배드뱅크에서 빚을 재조정 받고 사채(私債)등 나머지 빚은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짜서 갚을 수 있게 된다(한국경제, 2004.4.9).

## (5)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제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환대출, 리볼빙 제도가 있다. 이 제도들은 금융기관이 미납대금만큼 대출을 해서 카드미납대금을 상환해주는 제도이며 현재 카드 돌려막기의 수단이 되고 있다.

리볼빙(회전결제)제도란 총 이용한도와 월별 결제비용(5~50%)을 카드사와 약정한 후 매월 약정비용에 따른 결제금액과 잔액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최근 카드사와 은행 등이 앞다투어 내놓음으로써 특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대환대출(연체대금을 신규대출로 바꾸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방법으로 분할상환 등으로

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사채업의 고유분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그 유일한 효과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환방법을 분할상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가 상환의 시일을 벌 수 있다.

카드사와 은행 등은 대환대출을 신용회복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도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며, 적절한 형태의 보완대책(자금조달의 측면에서 단기자금조달 형태를 장기자금조달 형태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과 상환의 측면에서는 개인채무자들의 변제가 용이하도록 이자율과 원금의 조정 등) 없이 진행되는 경우 만만치 않은 부작용마저 예고하고 있다(송태경, 2003).

## 4.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정도를 살펴보면, 정부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배드뱅크(bad bank) 설립 방안을 내놓은 뒤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받는 신용불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2004)에 따르면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소에 총 672명의 신용불량자가 채무재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최근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2004년 3월 9일 600명을 넘어선 후 재정경제부가 배드뱅크 출범계획을 발표한 2004년 3월 11일(632명)과 다음 날인 2004년 3월 12일(660명) 사이에도 소폭 증가했다. 특히 배드뱅크 혜택을 받는 신용불량자가 6개월 이상 5,000만원 미만 연체자로 확정된 2004년 3월 17일 589명으로 줄었지만 2004년 3월 18일 다시 674명으로 크게 늘었다(서울경제신문, 2004.3.22). 그러나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2005년 3월에 정부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어놓아 기초수급자의 채무를 탕감해주었고, 이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의 논란이 발생하였다(세계일보, 2005.3.23.).

## 5. 선행연구의 고찰

신용불량구제정책의 인식 및 기대에 관련된 문헌은 부족한 실정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용불량관련 선행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신용불량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로는 김홍란(2001), 류정순(2003), 배미경(2003), 삼성경제연구소(2003), 이상승(2003)이 있었다. 이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홍란(2001)의 신용카드거래의 증대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용카드발급에 있어서의 문제점중 하나로 신용불량자 양산 문제를 꼽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의해 무계획적인 신용카드의 이용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소비자의 수의 증가와 과소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신용카

드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하나의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류정순(2003)의 신용불량자의 신빈곤 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계부채의 원인은 카드 돌려막기, 사업자금, 생계비적자 및 의료비, 학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총 부채액수는 천만원~5천만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신용불량등재시점은 조사전체 중 과반수 이상이 2003년에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었고, 대출기관의 수도 1~3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용불량구제정책에 대한 의견으로는 미국식의 관대한 대인파산법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과 신용회복지원 민간단체 참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개인파산법제정으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적극적 채무 조정 동기부여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배미경(2003)의 신용불량자의 현황분석 및 증가요인에 따른 정책제언에서는 신용불량자 감소를 위한 해결방안 및 정책제언으로 크레딧 부로의 활성화, 신용카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공교육 실시, 소비자보호제도 마련, 개인 워크아웃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2003)의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제언에서는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을 소비자의 지불능력 이상의 소비,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금융기관의 회원확보 및 수수료 수입 증대에 주력, 정부의 신용카드사용을 촉진하면서 감독에는 소홀함, 보증인제도,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법제도와 지원기구의 미비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상승(2003)의 신용불량빈곤층과 일반빈곤층의 경제실태, 근로의욕 및 사회의식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월평균 수입은 신용불량 빈곤층이 일반빈곤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저축액은 신용불량 빈곤층이 일반빈곤층보다 덜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부채상환의 규모는 신용불량빈곤층이 일반빈곤층보다 월등히 높았다. 총부채액도 신용불량빈곤층이 일반 빈곤층보다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신용불량빈곤층은 일반빈곤층보다 더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근로의욕도 강하지만, 신용불량으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식비나 의료비까지 줄여야 될 정도로 낮은 소비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식을 비교해본 결과 신용불량자빈곤층은 일반 빈곤층보다 자존감이 낮고 자살과 범죄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불량자 가족 중에는 과소비 성향이나 도박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신용불량의 원인, 현황, 신용불량자의 심리적 상태, 구제제도, 정책제언 등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신용불량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및 기대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신용불량자를 조사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거친 후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4년 4월 28일부터 2004년 5월 4일까지 신용불량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부하였으나 290부만 회수(회수율 96.6%)되었으며, 290부 모두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3. 척도구성 및 측정방법

본 연구의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의 척도구성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는 사회경제적 변수 7문항(성별, 연령, 직업, 결혼여부, 학력, 월평균소득, 거주지역), 신용불량상태에 관한 변수 5문항(신용카드발급개수, 신용불량등재시점, 총 채무액, 남아있는 채무 수, 신용불량의 주된 원인)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신용불량구제정책에 대한 신용불량자의 인지도 및 기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심지현, 2001; 김지현, 2002; 이분희, 2002; 조정근, 2002)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 보완 하였다. 신용불량구제정책에 관한 인지도 23문항, 신용불량구제정책에 관한 기대도 11문항을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는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에 관한 변수 2문항,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에 관해 5문항, 신용불량구제기관·매체 활용에 관해 5문항을 측정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논문의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10.0 Program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정책의 인지 및 기대,

활용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구제 정책 활용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Correlation)를 먼저 살펴본 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사회경제적 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학력, 월평균소득, 거주지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43.1%, 여자가 56.9%였으며, 연령은 평균 38.3세로 30대가 40.3%로 가장 많았고, 결혼여부는 기혼은 67.6%, 미혼은 32.4%로 나타났다.

직업은 정규직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영업, 주부, 임시직, 기타직, 무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평균 13.2년으로 고졸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고, 월평균소득은 평균 138.4만원이었다. 거주지역은 서울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기타소도시, 광역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관련변수는 신용카드발급개수, 총채무액, 채무수, 신용불량등재시점, 신용불량원인으로 구성하였다. 신용카드 발급개수는 평균 4.5개로 나타났으며, 신용카드 발급개수가 3-5개인 집단이 53.8%를 차지하였다. 총 채무액의 평균은 4,43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채무수는 평균 5.6개로 4-6개의 채무수를 갖은 사람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3개, 7-9개, 10개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 등재시점은 2004년 이후가 5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의 원인은 카드돌려막기 불가능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실패가 32.4%, 기타, 지나친 소비, 실직, 보증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신용불량구제정책의 인지도 및 기대도

###### 1) 신용불량구제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기대도

신용불량구제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기대도는 <표 2>와 같다.

먼저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는 5점 만점에 2.99점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냈다. 신용불량구제정책의 각 제도별 인지도를 살펴보면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41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용불량구제제도에 대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90)

사회경제적 변수		N(%)
성 별	남 자	125(43.1)
	여 자	165(56.9)
연 령	20대	54(18.6)
	30대	117(40.3)
	40대	78(26.9)
	50대 이상	41(14.1)
	평 균	38.34세
결혼여부	미 혼	94(32.4)
	기 혼	196(67.6)
직 업	자 영업	72(24.8)
	정 규 직	78(26.9)
	임 시 직	41(14.1)
	주 부	53(18.3)
	학 생	5( 1.7)
	무 직	9( 3.1)
	기 타	32(11.0)
학 령	고졸이하	169(58.3)
	전문대졸	57(19.7)
	대 졸	56(19.3)
	대학원 이상	8( 2.8)
	평 균	13.21년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13(39.0)
	100만원-150만원 이하	90(31.0)
	150만원-200만원 이하	53(18.3)
	200만원-250만원 이하	16( 5.5)
	250만원 이상	18( 6.2)
거주지역	서 울	149(51.4)
	경 기 도	104(35.9)
	광 역 시	4( 1.4)
	기타소도시	33(11.4)
신용불량관련 변수		N(%)
신용카드 발급개수	0-2개	48(16.6)
	3-5개	156(53.8)
	6-8개	70(24.1)
	9개 이상	16( 5.5)
	평 균	4.5개
총 채무액	2000만원 미만	82(28.3)
	2000만원-3000만원미만	73(25.2)
	3000만원-5000만원미만	77(26.6)
	5000만원-7000만원미만	30(10.3)
	7000만원 이상	28( 9.7)
평 균	4,432만원	
총 채무수	1-3개	67(23.1)
	4-6개	138(47.6)
	7-9개	56(19.3)
	10개 이상	29(10.0)
	평 균	5.6개
신용불량 등재시점	2002년 12월 이전	34(11.7)
	2003년	99(34.1)
	2004년 1월 이후	157(54.1)
	평 균	2003년12월
신용불량 원인	카드돌려막기 불가능	102(35.2)
	사업실패	94(32.4)
	실 직	20( 6.9)
	보 증	17( 5.9)
	지나친소비	25( 8.6)
	기 타	32(11.0)

〈표 2〉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및 기대도

(점수분포 : 1-5점)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및 기대도		M	SD
신용불량 구제정책에 대한 인지도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인지도	2.82	0.93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인지도	2.72	1.21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인지도	3.41	1.02
	배드뱅크제도에 대한 인지도	3.07	1.06
	금융기관시행제도에 대한 인지도	2.37	1.04
	신용불량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	3.36	0.85
	신용불량구제정책을 활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관·매체에 대한 인지도	3.07	0.86
전 체 인 지 도		2.99	0.72
신용불량 구제정책에 대한 기대도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기대도	3.12	0.99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기대도	3.54	0.89
	워크아웃에 대한 기대도	3.72	0.86
	배드뱅크제도에 대한 기대도	3.39	0.97
	금융기관시행제도에 대한 기대도	2.80	1.06
	전 체 인 지 도		3.36

인지도는 2.37로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신용불량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는 3.36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불량구제정책을 활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관·매체에 대한 인지도는 3.07로 높게 인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시행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용불량구제정책에 대한 기대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36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신용불량구제정책의 각 제도별 기대도는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기대도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기대도가 3.54, 배드뱅크제도에 대한 기대도가 3.39,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기대도가 3.12,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용불량구제제도에 대한 기대도는 2.80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의 차이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를 5점 만점의 기준을 바탕으로 상·중·하 3개의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인지도가 상인 집단이 기대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도가 중인 집단과 하인 집단의 순으로 기대도가 나타났다(표 3).

〈표 3〉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의 차이

변 수	집 단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	
		M	D <sup>a)</sup>
신용불량 구제정책 인지도	상	3.74	A
	중	3.32	B
	하	3.23	B
F값		7.36**	

a)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 3.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도

#### 1)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도

신용불량구제를 위해 활용하는 제도와 신용불량구제방안 활용을 위하여 이용하는 기관·매체를 살펴보면, 먼저 신용불량구제를 위해 활용하는 제도는 개인워크아웃제도(62.4%)가 가장 많았으며, 개인회생제도(17.2%),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구제제도(8.3%), 배드뱅크제도(4.5%),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는다(4.5%), 기타(1.7%), 개인파산제도(0.7%)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을 위해 이용하는 기관·매체에서는 정부관련 기관(49.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적·신문·인터넷(26.6%), 금융기관(10.3%), 주변인(5.2%),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는다(3.8%), 민간소비자단체(1.7%), 기

〈표 4〉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도 (점수분포 : 1-5점)

변 수	집 단	N(%)	활용도M(SD)	
신용 불량 구제 정책	신용 불량 구제 제도	개인파산제도	2( 0.7)	
		개인회생제도	50( 17.2)	
		개인워크아웃제도	181( 62.4)	
		배드뱅크제도	13( 4.5)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구제제도	24( 8.3)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는다	13( 4.5)	
	기 타 결 측	기 타	5( 1.7)	
		결 측	2( 0.7)	
		신용 불량 구제 기관·매체	정부관련기관	144( 49.7)
			민간소비자단체	5( 1.7)
금융기관	30( 10.3)			
서적, 신문, 인터넷	77( 26.6)			
주 변 인	주 변 인	15( 5.2)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는다	11( 3.8)		
	기 타 결 측	4( 1.4)		
전 체		290(100.0)	2.59(0.68)	

타(1.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신용불량구제정책의 전체 활용도의 평균은 2.59점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는 2.57, 신용불량구제기관·매체의 활용도는 2.61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도를 높여 신용불량구제가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불량구제제도와 신용불량구제기관·매체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적으로 많은 정보의 제공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2)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및 기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의 차이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및 기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및 기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정책 전체활용도는 각 집단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 중, 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및 기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제도의 활용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 중, 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의 차이에서는 각 집단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대도가 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신용불량구제제도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및 기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기관·매체 활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기관·매체 활용도는 각 집단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 중, 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기관·매체 활용도는 각 집단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대도가 중이상의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와 기대도가 높으면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신용불량구제정책에 대해 일반소비자들과 신용불량자들에게 학교, 사회,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여, 일반소비자들에게는 신용불량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신용불량구제정책을 활용하여 신용불량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으므로 신용불량구제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4.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신용불량구제정책 전체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학력,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이었다. 즉, 성별 중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낮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전체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 중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학력,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이었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여자보다 남자일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 중 신용불량구제기관·매체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 이었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기관·매체 활

<표 5>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및 기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의 차이

변 수	집 단	신용불량구제정책 전체활용도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			
				신용불량구제 제도 활용도		신용불량구제 기관·매체 활용도	
		M	D <sup>a)</sup>	M	D <sup>a)</sup>	M	D <sup>a)</sup>
신용불량 구제정책 인지도	상	3.07	A	3.12	A	3.06	A
	중	2.59	B	2.55	B	2.62	B
	하	2.26	C	2.25	C	2.27	C
	F값	1.96***		15.64***		11.39***	
신용불량 구제정책 기대도	상	2.92	A	2.97	A	2.88	A
	중	2.50	B	2.44	B	2.55	A
	하	2.15	C	2.15	B	2.14	B
	F값	15.24***		16.85***		8.66***	

a)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표 6〉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수	종속변수		신용불량구제정책 전체활용도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	
				신용불량구제 제도 활용도	신용불량구제 기관·매체 활용도
			$\beta$	$\beta$	$\beta$
사회경제적 변수	성 별	남	.133*	.146*	.100
	연 령		-.040	-.038	-.037
	직 업	정 규 직	-.008	-.044	.028
		임 시 직	.018	-.008	.041
		주 부	-.077	-.092	-.047
	학생·무직·기타		-.056	-.078	-.023
	결혼여부	미 혼	-.013	-.102	.072
	학 령		-.152**	-.137*	-.137*
	월평균소득		-.093	-.104	-.070
	거주지역	경 기 도	.015	.041	-.019
광 역 시		-.032	-.055	-.001	
기타소도시		-.005	-.026	.016	
신용불량 관련 변수	신용카드발급개수		.040	.053	.020
	신용불량등재시점		.048	.079	.008
	총 채 무 액		-.039	-.032	-.039
	채 무 수		.070	.034	.094
	신용불량 원인	사업실패	.005	-.001	.010
		실 직	-.061	-.056	-.053
		보 증	.009	.028	-.009
		지나친소비	.042	.041	.036
기 타		.049	.004	.088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310***	.283***	.277***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			.306***	.307***	.244***
adjusted R <sup>2</sup>			0.254	0.237	0.182
상 수			-64.301	-117.610	-11.069
F값			4.899	4.569	3.578

\*P&lt;.05, \*\*P&lt;.01, \*\*\*P&lt;.001

각 변수의 기준: 성별: 여자 직업: 자영업 결혼여부: 기혼 거주지역: 서울 신용불량원인: 카드돌려막기

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도는 성별, 학력, 신용불량구제정책의 인지도, 신용불량구제정책의 기대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용불량구제정책교육이 필요하며, 학력이 낮은 신용불량자가 신용불량구제제도의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불량구제에 관한 충분하고 적절한 상담과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용불량자의 인지도와 기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 사회, 국가적으로 신용불량구제정책에 대한 소비자교육과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식도와 기대도에 따른 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신용불량자는 2004년 6월 400만 명 까지 급증하였으며 신용불량으로 인한 불이익도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용불량구제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불량자를 위한 신용불량구제제도이용을 돕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신용불량자들을 대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하러온 신용불량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및 기대도를 살펴본 결과, 먼저 인지도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대도는 보통보다 높게 나타나 신용불량구제정책에 대한 신용불량자의 기대가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으로 이뤄지도록 적절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지도가 높을수록 기대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및 기대도에 따른 신용불

량구제정책 활용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신용불량구제정책 전체활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신용불량구제정책 전체활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상, 중, 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대도가 높은 집단이 신용불량구제정책 전체활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상, 중, 하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가 가장 높았고 상, 중, 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대도가 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구제기관·매체 활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신용불량구제기관·매체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상, 중, 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대도가 중이상의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신용불량구제기관·매체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신용불량구제정책 전체활용도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성별, 학력,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로 나타났다. 즉, 성별 중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낮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전체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와 신용불량구제기관·매체의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가 높을수록 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와 기대도를 높여야 한다.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와 기대도는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소비자교육이 정부 및 민간 소비자단체와 금융기관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소비자교육은 신용불량자와 신용불량의 예방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므로 각 대상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용불량구제정책의 기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종 매체나 기관에서 신용불량구제정책과 이를 활용한 사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하며, 일 자리 제공과 경기회복을 통하여 신용불량을 근본적으로 해

결해야 한다.

둘째, 학력이 낮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부는 저학력의 신용불량자들이 신용불량구제정책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사용이 용이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정보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상담인력의 증원과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로 신용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신용불량자 각 개인에 맞는 신용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신용불량구제를 위한 관련 기관과 상담인력의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하여 개인적 차원 및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신용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개인적 신용회복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자율적으로 재무관리를 모색하여 가계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기초로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신용불량자수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자살, 존속살인, 이혼, 가출, 사회적 불안 요인들이 줄어들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 경제 기반을 다지는데 본 연구가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도시인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나,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까지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의 신용불량구제기관을 이용하는 신용불량자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더 적절한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신용불량자의 특성상 이들을 대면하기 어려운 점과 주관적인 응답을 얻어내기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질문지를 이용한 양적연구만 이뤄졌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다수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2003).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방향.
- 김지현(2002). 교육개혁 정책에 관한 초등교사의 인식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정순(2003). 신용불량자의 신빈곤 실태와 정책과제. 매일경제(2004). 1월 16일자.
- 머니투데이(2004). 5월 27일자.
- 박수진(2003). 쉽게 알아보는 신용불량 벗어나기. 이화경영연구소.
- 박현일(2003). 신용카드채권의 당면과제와 법률대책.

- 배미경(2003). 신용불량자의 현황분석 및 증가요인에 따른 정책제언.
- 삼성경제연구소(2003).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제언'.
- 서울경제(2004). 3월 22일자.
- 서울신문(2005). 4월 14일자.
- 세계일보(2005). 3월 23일자.
- 송태경(2003). "개인채무자 신용회복법,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 심지현(2001). 신문활용교육(N.I.E)이 어린이의 사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 2002.6.29). 대통령령 제17645호 재정경제부.
- 이분희(2002). 수행평가 정책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행방안 개선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승(2003). '신용불량빈곤층과 일반빈곤층의 경제실태, 근로의욕 및 사회의식 차이 분석'.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제 23차 정기토론회 보고서.
- 재정경제부(2004).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안.
- 전효찬(2000). 신용불량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 조정근(2002). 초등학교 체육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기대.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자(2002).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덕적 해이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22, 70-86.
- 한국경제(2004). 4월 9일자.
- 한국일보(2002). 1월 31일자.
- 홍승제(1997). 최근 소비자신용증가의 영향 및 대책. 신용카드, 17.
- [Http:// www.badbank.or.kr](http://www.badbank.or.kr)
- [Http:// www.pcrs.or.kr](http://www.pcrs.or.kr)

(2005년 3월 3일 접수, 2005년 12월 8일 채택)